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열광하던 무리는 물론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도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중에 무엇을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승리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인들이 도열했으나 그분을 조롱하기 위함이었고, 광채나는 관 대신 가시가 뺀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왕의 규 대신 갈대가 들렸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신한 제자, 조롱하는 군중, 눈물짓는 여인들, 그분을 못 박은 병사들. 예수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내가 바로 십자가 주변을 둘러싼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갈 ‘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으로 인해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 ①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 ②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과만을 바랍니까?